

성별과 직업의 ‘다양성’, 가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갑시다



이안 라이즐리(Ian H.S. Riseley)
국제로타리 회장(2017-18)

로타리의 강점 중 하나는 바로 회원들의 다양성입니다. 이 다양성의 기원은 로타리에 직업 분류 제도가 도입된 초창기 역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이디어의 배경은 간단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재능을 가진 회원들이 활동하는 클럽이 그렇지 않은 클럽에 비해 더 나은 봉사를 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성은 더욱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클럽의 회원 구성이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을 반영할수록 훨씬 더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내다볼 때, 봉사뿐만 아니라 강력한 단체로 존재하기 위해서도 다양성이 로타리의 핵심 요소여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회원의 다양성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요소는 바로 연령층의 확대입니다. 로타리 행사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참가자 대부분의 연령대가 로타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약속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회원 수가 최고치에 가깝고 신입회원도 꾸준히 영입되고 있지만,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로타리 봉사를 이어갈 젊은 사람들은 여전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내일의 로타리 리더십을 강화하려면 바로 오늘, 젊고 역량 있는 회원들을 영입해야 합니다.

또한 양성평등을 빼놓고는 로타리의 다양성을 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여성은 로타리에 입회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 이후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잘못된 정책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로타리는 남성들만을 위한 단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고정관념은 로타리의 공공이미지나 회원 증강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성은 전체 회원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실로 커다란 진전임이 분명하지만, 우리의 목표에는 한참 못미칩니다. 로타리는 세상 인구의 남녀 균형과 마찬가지로 회원 구성에서도 남녀의 균형을 이룩해야 합니다.

각자 어떤 이유로 로타리에 입회했든지, 우리가 로타리 회원으로 남아 있는 이유는 로타리에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며, 우리의 봉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다양성을 반영한 클럽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로타리’에 더욱 굳건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